

# 알바생들 울리는 ‘코로나체불’

대학생들, 코로나19에 월급 제때 못받아  
 “그만 나와라” 권유도...고용노동부 진정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피해 사례 올라와  
 “상황 어렵겠지만 밀리는게 당연한 수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한이 걸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호소했던 경제 피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부 업주들은 “상황이 어렵다”며 아르바이트생의 월급 지급마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사장님이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13일 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 인근 카페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A(23)씨는 업주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며 일을 그만 둘 것을 권유한 뒤 11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뉴스사와 통화에서 “최저 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치 급여가

약 100만원 수준인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며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4명 있었는데 2명은 받았고 저와 다른 1명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상황이 지난해 11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다시 부르는 일은 없었다며 “제가 그만둔다는 말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잘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추측이지만 상대적으로 일을 더 적게 해서 급여가 적은 아르바이트생들만 급여를 받은 것 같다”며 “계속 달라고 해도 지금은 사장이 연락도 안 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거기서도 사장과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뉴스사는 A씨가 일했던 카페 사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에



브리타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월급 밀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토로했다.

한 작성자는 “친한 지인이 월급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잔해서 글을 올린다”며 “B카페 사장은 제 때 월급을 보내주는 일이 없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맨날 연락하고 사정해야 겨우 보내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장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무시하고 전화 수신 거부하다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없이 돈만 딱 보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아르

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밝힌 다른 작성자도 “사장이 코로나19 때문에 매니저를 통해 ‘월급 지급이 늦는다’고 통보만 하고 제때 안 준 적이 많다”며 “그나마 늦게라도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 권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카페 내 취식 금지 등 영업에 제한이 걸리면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약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자동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술만 마시면 행패에 경찰관까지 폭행 20대 영장

전남 화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상인들을 괴롭히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화순군 모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30여분 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어 술만 마시면 동네 상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고, 상인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주차 차량 잇따라 턴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주차 차량에서 잇따라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부 일대에 세워진 주차 차량에 침입,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열린 차량을 노리거나 도구로 유리창을 깨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3개월여 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각지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학대 의심해 녹음기 숨겨 등원시킨 엄마...교사 입건

인천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한 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시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5)군 등 2명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5)군의 부모는 최근 말수가 줄어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고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인천시에 따르면 당시 녹음기에는 보육교사가 큰 소리로 다른 원생 B군 등 2명을 학대한 정황이 담겨있었고, C군을 포함한 다른 원생들이 큰소리로 혼내는 것을 듣고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학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녹음기에는 학대 의심을 신고한 부모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 2명을 혼내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지금까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뀐 휴대폰 번호 미신고 70대 성범죄자 벌금 200만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7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범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성추행 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락처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전남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 검사 의무화

위반시 손해배상·치료비 청구 등 강력 대응

전남도는 13일 전주 국제기도원에 이어 상주 BTJ열방센터 등에 따른 코로나19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 상주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추가 39명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124명에 대한 검사결과 8명이 양성 판정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8명이 감염됐다.

정부 발표 결과 전국 BTJ열방센터 모임명단 중 약 70%가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명령과 함께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긴급제안 문자도 보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 있는 사람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